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도 수단이 아닌 목적임을 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자기에게 품부(稟賦)된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런 소망을 비웃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힘없는 이들의 한숨소리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부푼 우리 마음은 뭔가에 쫓기듯 늘 불안정합니다.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능력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들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의 중심으로 삼고 살도록 성령의 은총을 허락해주십시오.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미가7:8	인도자
♠ 교 독 문	5. 시편13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16. 아버지여 나의 맘을	다함께
성경봉독	I. 잠15:4	인도자
	II. 유1:20-25	노순옥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말은 생명나무	이성운 전도사
	II. 믿음과 연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믿음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십시오. 이웃들과 더불어 어깨를 곁고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구원과 의로우심을 알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참빛 찬양대 헌신예배	말씀 : 김재흥 목사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장혜숙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노순옥 권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조항범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홍순구	유영남	이영란	이증자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김근중	배상순	최숙화	박효선

시중(時中)의 전략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젊은 목회자의 딱한 편지를 받았다. 회중들을 근대적 사유와 삶의 자리로 이끄는 지도자를 십자가에 못박으려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벌써 몇 해째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학적인 문제로 교인들과 다투본 적은 없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교인들이 몇 명 없었는데,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내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복음”에 대한 대체적인 동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대개 보수적인 배경과 교회출신들이었지만, 거의가 젊은이들이었다.

만약 설교자가 근대적 지성의 빛 속에서 종교적 주장들을 재해석하는 일 때문에 곤경에 처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옛 정통주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올 때 너무 요란을 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목회적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한복판으로 걷는 일일 것이다. 좌나 우로 치우칠 필요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절차의 문제일 뿐이고 시중(時中)의 전략에 입각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견제하는 태도와 한 말씀 꼭 보태려는 태도를 조롱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견해를 바르고 간결하게 드러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중심에는 진정한 진보를 위한 힘과 구체적인 갈등에 저항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전략의 강점이다. 만약 증오와 편협함, 그리고 탐욕에 삼켜진 사회에 맞서 복음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설교자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복음의 진실한 메시지가 던지는 도전에 응답할 수 있는 자연 은총이 있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것에 저항하려는 원죄도 또한 있으니 말이다. 최악의 설교자는 지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급진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인습적인 도덕률을 외치는 이들이다.

사람들은 복음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자기의 지성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중심에 진정이 있다면 좌나 우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신중해질 것이다.(1922)

참 좋은 목사

나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고 있는 참 좋은 목사를 만났다. 나는 고

등학교 졸업식 연설을 하려고 그곳을 방문했다. 그의 교회는 평범한 마을 교회로 보였지만 그는 그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임이 분명해 보였다. 교파적 제한은 대부분의 목사들을 작은 마을 공동체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만드는—좀 더 넓은 지평에서의 지도력에 관한 한—요인인데, 그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폭넓은 공감의 능력 때문이었다. 마을에는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 교회들 사이의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은 마치 한 단위가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지은 작은 예배당은 일주일 내내 다양한 활동의 중심지 구실을 했다. 그는 주중 종교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오후 시간을 그 일에 온통 바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이 친밀한 만남의 열매임이 분명했다. 그는 자기 일을 즐겼으며 대도시 교회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들과 작은 목사관에서 소박하게 살았는데, 목사관의 여주인은 자기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웃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어쩌면 내가 시골 살림을 낭만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골 생활이 때로는 아주 난감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층 간의 위화감이 없다는 사실 때문인지 교회와 마을에서 사람들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설교자는 힘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교회가 감당하는 목사의 생활비는 그가 소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는 되었고, 그 때문인지 그는 사회적 허세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런 교회마다 젊은이들을 좀 더 많이 모이고 “큰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면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 젊은 목사는 웅변가라기보다는 빈틈없는 지성의 소유자였다. 만약 그가 재능이 많은 설교가였다면 어쩌면 벌써 “잘 나가는”? 어떤 의미에서 망가진?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특권과 권력이 소박한 기독교인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것을 심심찮게 보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세상이 가늠할 수 있는 명백한 성공을 덧붙여야 한다고 확신한다. 성공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유지되는 단순성은 미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순진함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미덕을 가질 수 없다면 도덕적 타락보다는 차라리 순진함이 더 낫다.

너나없이 성공을 찬미하는 시대에 덕스러운 겸양과 성실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1923)

아침마다 눈을 뜨면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피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피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피로우랴
웃은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너보고 마주보고 바로 보고 산다면
아침마차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박목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한상의 정영선 김창원 정지은 고사일 최영선 임승동 백혜숙 김근종
 정옥영 백묘현 백승민 유명숙 이봉옥 박홍엽 이은옥 최숙화 김정길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희진 박홍재 김훈동 김순복 전영웅 김금순
 이에정 배연희 권채영 김영순 양재성 임미심 노용래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문복순 김수연 이광섭 김남종 오복순 정두리 김정섭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전영규 김경수 홍복선 권미정 이증자 김창경
 노미향 송동준 김진경 류건형

감사헌금:

김준호 곽혜자 김명순 김미순 김윤수 박옥경 임창선 송동준 김진경
 최미선 방극숙 이인섭 조항신 김애경 김영한 김순복 오광자 김용진

생일감사헌금: 김중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정 두 리	연 합 속 회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박 홍 엽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정 진 경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임 창 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참빛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부장회의** : 교회학교 교육부장 회의가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 **청년회** : 1시 30분부터 모여 성경공부를 한 후에, 애란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5. **유아부** :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석 주 동안(9일, 16일, 23일) 교회에서 실시됩니다.
6. **연합속회** : 7월 14일 오전 11시에 모이고 속회 방학에 들어갑니다.
예배 인도 - 빌립보 속 식사 준비 - 엠마오 속
7. **봉사** : 연합속회 이후에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갑니다.
8. **신앙실천** : 하루에 다만 10분만이라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이미 선교입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헌화 : 김준호 권사 (어머니 기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